



신지소프트 | 최충엽 | 대표

# 또 하나의 신천지 '유비쿼터스 세상' 을 점령하라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집안의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고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 영화나 CF에 등장하던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맞춰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신지소프트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신천지 개척에 여념이 없는 신지소프트의 성공비결과 경영전략을 최충엽 대표에게서 듣는다.



## 무

신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하는 신지소프트의 최충엽 대표. 그는 신천지를 찾아 거침없이 도전했던 몽골제국의 영웅 칭기즈칸을 닮았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소프트웨어 강자가 되겠다는 집념,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찬 포부에서 남다른 기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표 스스로도 학창시절부터 칭기즈칸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 두 사나이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칭기즈칸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저 역시 디지털 영토 확장을 꿈꿉니다. 그는 도전정신이 투철했을 뿐 아니라 인재관리에도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런 철두철미함을 배워 기업 경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일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하기로 유명한 최대표는 지난 2001년 신지소프트에 합류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의 선봉장으로 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세계 최초로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솔루션 GVM과 GNEX를 개발해 모바일콘텐츠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무선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든 획기적인 이 기술은 당시까지만 해도 음성통화와 문자정보 서비스에만 국한됐던 휴대폰의 기능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이후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무선표준플랫폼 WIPI 개발에 적극 참여, 국가표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디지털 영토 확장의 야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갔다. 이스라엘의 통신업체 Orange사에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솔루션을 공급해 유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고, 최대표는 이러한 공로 덕에 지난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개척자에게 만족이란 없을 터. 신지소프트의 질주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하고 있다. 지금 최대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신천지는 유비쿼터스 세상. 신지소프트가 개발한 솔루션을 핸드폰 이외에도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신지소프트는 올해부터 ‘Any Device, Any Platfor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디바이스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힘으로써 유비쿼터스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했다.

“인터넷, 하면 흔히 사람들은 컴퓨터를 떠올리죠. 그러나 앞으로는 핸드폰, MP3플레이어, PDA, PMP, Smart Phone, 텔레매틱스를 더 먼저 떠올릴 정도로 무선인터넷 환경이 발달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컴퓨터가 이끄는 IT세상을 미국이 주도했다면, 소형 디바이스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세상은 한국이 앞설 것이라는 것이 최대표의 전망이다. 그만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최대표가 보여주는 자신감의 근원은 신지소프트의 원천기술에 있다. 시장의 수요를 미리 읽어내고 한발 앞서 개발한 원천기술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로열티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과 왕성한 도전정신이 있는 한 신지소프트가 소프트웨어기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신천지(新天地)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지(新地)소프트. 불과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불모지와 같았던 무선인터넷 솔루션 사업에 뛰어든 지난 5년의 역사야말로 벤처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금은 직원 수가 96명으로 늘어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벤처는 소신과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경영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집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지소프트의 영토 확장 노력은 기한이 없는 ‘무한도전’이 될 것입니다.”

최충엽 대표는 벤처 후배들에게 ‘대기만성’의 원리를 강조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 큰 몫을 감당할 그릇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 속에 신지소프트를 뛰어넘는 벤처기업의 등장을 기대하는 염원도 숨어있을 터다. 철두철미한 경영방식만큼이나 후배들을 향한 조언에도 야무진 모범답안을 내놓는 최대표의 모습에서 정도(正道)를 걸어가려는 소신이 엿보인다. 조만간 유비쿼터스 세상을 호령할 칭기즈칸의 부활을 기대한다.

## Tip 신지소프트 비장의 무기 GNEX / GVM

신지소프트가 개발한 GNEX/GVM은 세계 최초의 무선인터넷 솔루션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신지소프트의 대표주자이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정통부장관상, 대한민국SW대상, KT마크 등을 수상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1700만대의 휴대폰에 GNEX/GVM가 탑재되어 휴대폰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신지소프트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수입업체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